

4 대기업-중소기업 협력으로 탈출구 찾는다

기술력 · 경쟁력 갖춘 '중핵기업'을 육성한다

글_ 최원락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품소재팀장 ochoi@fki.or.kr

부품소재는 완제품의 품질 및 가격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로 경제전체의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부품소재산업은 수출-내수기업간, 대-중소기업간 경제성과의 전파수준을 결정함으로써 경제의 균형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제조업 부가가치를 100으로 볼 때, 부품소재 산업과 완제품 산업이 각각 60.8%와 39.2%로 완제품 부가가치의 60% 이상을 부품소재가 차지하고 있다. 또한 부품소재가 차지하는 제조업 원가구성비는 63.4%에 달한다. 항공기, 자동차, 디지털 TV 생산에 소요되는 부품수는 각각 10만 개와 2만 개, 그리고

700여 개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완제품 조립가공 산업이 아무리 경쟁력이 있다 하더라도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해서는 명실상부한 제조업 강국이 되기 어렵다.

'글로벌 소싱' 전략 확산으로 경쟁 치열

가격과 조건만 맞다면 필요한 부품과 원료를 세계 어느 곳에서라도 공급받는 글로벌 소싱전략과 더불어 세계 산업의 중심축은 조립가공 산업에서 부품·소재산업으로 이동한지 오래다. 선진 각국은 이러한 조류를 일찍이 간파하고 부품·소재산업 발전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인텔이나

보쉬, 델파이, 킴펠 등 세계적인 부품소재 기업들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들 다국적 기업들은 수요업체인 완제품 생산업체와 대등하거나 또는 우월한 지위에서 세계 주요 핵심부품소재 공급을 주도하고 있다. 실제로 인텔 인사이드칩은 전세계 컴퓨터 CPU 공급의 80%를, 보쉬와 델파이, 텐스 등 3개사는 전세계 디젤엔진 연료분사 장치 공급의 70%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반면, 우리 나라는 선진 각국들이 100년 이상의 기간이나 공들여 이룩한 산업화를 압축하여 추격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부품소재산업에 소홀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조립가공 산업위주의 압축성장 과정에서 부품·소재산업은 조립가공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지체될 수밖에 없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그리고 현대자동차 등 우리의 기업들이 전세계 시장에서 각광받고 전기·전자 등 주력 산업부문에서 세계 1등 상품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주요 핵심부품·소재를 아직까지 해외에 의



부품·소재산업의 경제적 위상

존하고 있는 점이 이러한 현실을 잘 보여 준다. 경기회복과 균형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양극화의 문제도 결국은 부품·소재 기반이 취약하여 완제품부문의 호조가 부품소재 부문의 수요증대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의 기초소재 수입의존도 및 국산화율을 비교하여 보면 우리 부품·소재 산업의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난다.

2000년 기준으로 우리의 기초소재 수입의존도는 26.4%로 일본('93년 기준 8.1%)의 3배가 넘는다. 기초소재의 국산화율도 우리가 63.8%, 일본이 86.9%로 한·일간에 23.1%의 큰 격차가 있다. 이러한 격차는 핵심 부품소재 부문에서 우리와 일본 등 부품·소재 선진국간에 기술격차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부품·소재 기술수준은 2004년 기준으로 부품·소재 선진국의 80%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신제품 개발기술과 설계기술이 부족하여 생산기술은 선진국의 82% 수준인 반면, 신제품 개발기술과 설계기술은 각각 선진국의 77%, 79%수준에 불과하다.

범용 부품·소재의 상황도 경쟁대상국만 달라질 뿐 핵심부품·소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중저가 범용 부품·소재 부문에서 중국의 추격이 거세어 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첨단 핵심 부품·소재 부문은 기술경쟁력 측면에서, 범용 부품·소재 부문은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일본과 중국의 협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일부 신기술분야에 있어서는 중국과의 격차가 매우 근소한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자아낸다. 실제로 2004년 과학기술부 자료에 따르면 우주항공 등 99개 미래 핵심기술의 경우, 미국을 100으로 볼 때 일본 87.6, 한국 65.1, 중국 52.5로 중



부품·소재산업의 대중소기업 비중



부품·소재 공급체계상의 기업간 협력체계

국과 우리와의 기술격차가 2.1년에 불과한 실정이다.

중소기업이 99.1% · R&D 투자 미흡

우리 부품·소재 산업의 위상을 보면, 2002년 기준으로 전체 제조업생산의 38%, 종사자의 46.3%, 수출입의 40% 이상을 부품소재가 차지하고 있다. 부품소재 산업내 대중소기업 수를 보면, 종업원 5인 이상 부품·소재기업 총 3만4천 개 중 중소기업이 3만 3천 개, 대기업이 900여 개로 중소기업이 전체의 99.1%를 차지한다. 종업원수가 적은 중소 부품소재기업으로서 벤처 혁신기업이 아닌 기업이 첨단 고부가가치를 위한 기술투자에 주력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이 제조업 평균을 하회하는 부품·소재기업의 수가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스펙터의 주장대로 수 많은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R&D 투자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

처럼 영세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여 R&D 투자여력이 매우 부족한 점은 우리 부품소재 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혹자는 상생적인 대중소기업 관계구축에 가장 큰 걸림돌로 납품단가 인하문제와 종속적 계열화 문제 등을 거론한다. 2003년 기준으로 한·일 간 자동차 부품업체의 모기업 단독거래 비율이 한국은 58.3%에 달하는 반면, 일본은 16.8%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종속적 계열화가 문제라고도 하고, 중소기업 납품단가가 2001년에는 2.6% 상승하였으나 2002년과 2003년 중에는 각각 3.9%, 6.6% 하락한 점을 들어 수요대기업을 비난하기도 한다. 과연 이러한 진단이 정확한 것인가? 먼저 납품단가 인하문제에 대해 살펴보자. 기술력 없이 저임에 의존하여 범용 부품·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이 전세계적인 글로벌 소싱전략에서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인지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면 진단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해 볼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글로벌 소싱 전략의 확산은 국내기업간에는 물론 전세계 부품·소재기업간 치열한 경쟁을 의미한다. 범용 부품·소재 부문 경쟁력의 핵심이 가격 또는 좀더 정밀하게 품질대비가격수준이라고 보면, 과연 우리의 부품·소재 기업들이 품질과 대비하여 얼마나 높은 가격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기술력은 떨어지고 품질은 중급수준인 상태에서 제품단가가 계속 상승한다면 시장상실이 초래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더욱이 완제품 시장 또한 독과점 시장이 아닌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완제품 기업들도 선진국 경쟁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러한 치열한 경쟁은 제품가격 인하압력으로 작용하게 되며 실제로 LCD TV 등 현실 시장에서 이러한 현상이 목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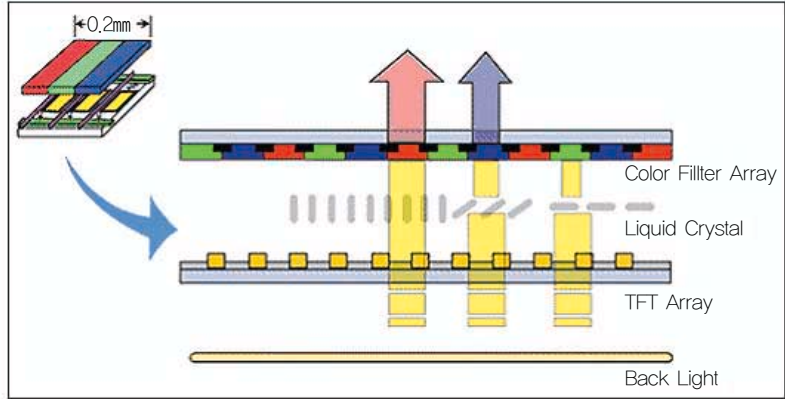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세계의 공장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품질은 비슷한 반면, 우리 기업이 제공하는 부품소재보다 중국 기업이 생산하는 부품소재가 더 싸다면 시장경제의 원리에 충실한 수요기업은 중국제품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부품소재를 사용한 완제품 또한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는 부품소재산업은 물론 완제품산업에도 치명타를 줄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개방화 및 글로벌 소싱 전략의 세계적 추세와 더불어 중국 등 후발국의 저가공세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술력에 의존하지 않는 국내 범용 부품·소재는 가격하락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종속적 계열화 문제에 대해 살펴보자. 기술력과 경쟁력 기반이 없는

업종별 주요부품의 모듈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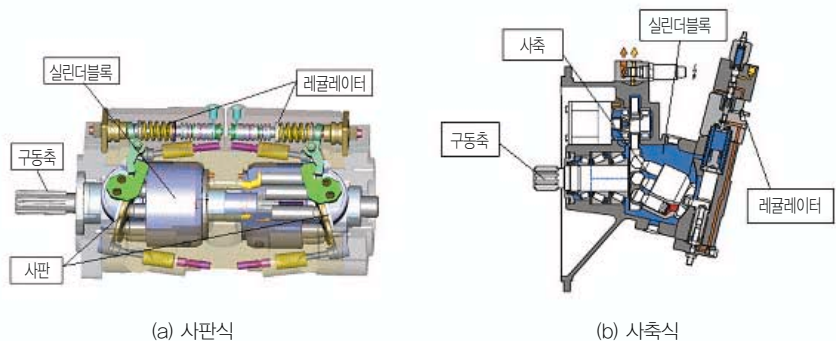
1. 전기전자 : TFT-LCD



2. 자동차 : 새시 모듈



3. 기계 : 굴착기용 유압펌프



상태에서 수요기업과의 대등한 거래관계 형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기술력과 경쟁력이 바탕이 되어야 부품·소재기업이

수요기업과의 거래에서 협상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물론, 일부 기업이 과거의 관행대로 부품·소재 협력기업을 종속적으

로 보거나 무리한 단가인하를 요구하는 사례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이러한 현실이 나타난 데는 나름대로의 이유와 원인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정확한 원인분석과 올바른 처방을 통해 바람직한 결과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간 상생의 핵심 '중핵기업의 육성'

어떻게 하면 대중소기업간에 바람직한 관계가 형성되도록 할 수 있는가? 첫째, 무엇보다도 핵심 부품·소재에 대한 기술개발 투자를 중핵 부품·소재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연결시켜야 한다. 우리 R&D투자의 절대규모가 일본의 1/10 수준임을 감안하면 한정된 R&D투자자원을 핵심 부품·소재 개발에 집중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특히 중요한 것은 핵심 부품·소재 기술개발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중핵 부품·소재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중핵기업은 부품·소재 수급 네트워크 상 최종 수요기업과 협력 부품·소재기업의 중간에서 이들 수급기업을 협력적으로 연결하는 핵심기업으로 규정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들 중핵기업이 첨단기술 고기술로 무장하고 협력 부품소재 기업들을 선도함으로써 수급기업을 협력적으로 연결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경쟁력 있는 중핵기업이 바로 서서 협력 부품소재 기업을 선도해 갈 때, 우리도 인텔이나, 보쉬, 델파이와 같은 초우량 부품소재 기업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중핵기업을 전략적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업종별로 중핵기업 기능을 할 수 있거나 중핵기업

화가 가능한 기업들을 파악하여 이들 기업이 주력제품에 대한 공동기술개발 과제를 주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중핵기업이 핵심 기술개발 과제 발굴 초기 단계부터 협력기업들과 공동으로 논의하고 연구토록 함으로써 대중소기업간 협력 강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고기술의 첨단 고부가제품 생산을 주도하는 중핵 부품·소재기업이 수요기업과 대등한 위치에서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중소 부품·소재기업을 선도하는 한편, 이들기업과 상생적인 협력관계를 맺도록 하자는 것이 중핵기업 육성의 기본 취지인 것이다.

둘째, 대중소기업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요기업과 부품·소재기업간의 기술개발 협력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기술개발 품목 선정과정에서 수요기업은 완제품 시장 및 필요 부품소재의 기능과 품질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부품·소재기업에 제공해야 한다. 한편, 부품·소재 기업은 품목제안 전에 구상중인 품목의 개발필요성과 예상수요 등에 관해 수요 기업과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요기업이 대기업 연구인력 및 퇴직 엔지니어의 협력기업 기술자문 등 중소협력기업에 대한 기술인력 및 기술연구 지원을 추진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 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부품·소재분야에서 자발적인 대중소기업 협력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협력 분위기의 조성은 강제나 반강제가 아닌 홍보와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타율에 의한 협력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협력만이 지속 가능하고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대중소기업 부품·소재 기술 공동개발 성공사례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국내외 협력사례

를 발굴·소개하고 관련 책자를 발간하여 배포하는 것이 홍보와 교육 강화를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대기업 보유 해외정보망을 통한 거래선 알선 등 마케팅 지원과 개발제품 생산기업과 수요기업간 매칭시장 개설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부품·소재산업의 대중소기업간 협력은 강화될 필요가 있다. 부품소재의 대중소기업간 협력을 이루는 가장 좋은 방안은 경쟁력과 기술력 있는 중핵 부품소재기업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일이다. 첨단 핵심기술로 무장한 중핵기업이 바로 설 때, 이를 통한 기술 파급 효과(Technology Spill-over Effect)를 기대할 수 있고 전반적인 부품소재의 경쟁력 향상과 상생적 대중소기업 협력관계의 형성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중핵기업을 중심으로 부품소재의 기술력과 경쟁력이 향상된다면 대중소기업간의 상생적인 협력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이며 부품·소재기업의 종속적 계열화나 수요기업의 제품단가 인하문제 등은 더 이상 언급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우리는 경제 재도약을 위한 갈림길에 서 있다. 도약의 길로 가느냐 정체기의 길로 향하느냐의 열쇠는 부품·소재가 쥐고 있다. 오직 핵심 부품·소재에 대한 기술경쟁력 제고를 토대로 자발적이고도 상생적인 대중소기업 협력체제가 형성될 때 도약으로 향하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이다. 부품·소재 경쟁력 강화가 경제 재도약과 산업부문간 균형발전을 위한 초석인 것이다. **SD**



글쓴이는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 후 펜실베이니아 주립대에서 석사·박사 학위를 받았다.